

TDB 경기동향조사(전국) - 2016년 10월 조사 -

2016년 11월 4일
주식회사 테이코데이터뱅크 산업조사부
http://www.tdb.co.jp/
경기동향조사전용 HP http://www.tdb-di.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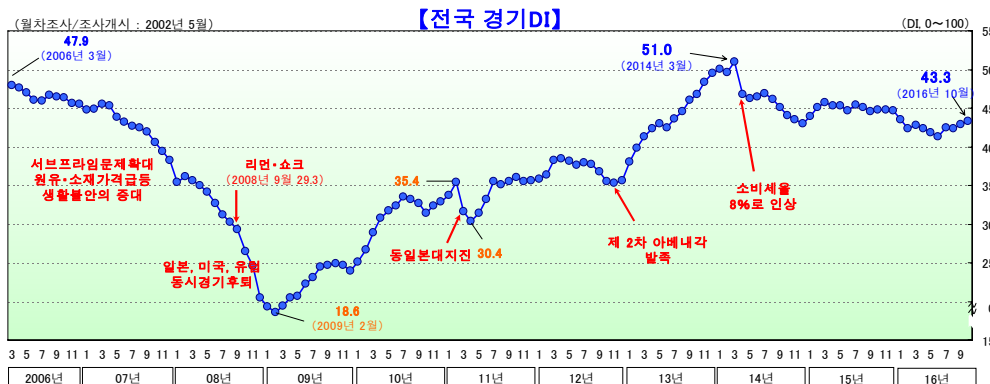
국내경기는 2개월 연속으로 개선

~ 개인소비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과 자동차생산이 국내경기를 견인 ~

(조사대상 2만 3,779사, 유효회답 1만 243사, 회답율 43.1%,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 포인트

- 10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4포인트 증가한 43.3이 되어 2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금융시장이 견조로 추이한 가운데 지진과 태풍피해로 인한 복구공사, 주택투자의 증가가 전체 경기를 끌어올렸다. 국내경기는 자동차생산의 회복과 함께 왕성한 건설관련수요가 지속되어 2개월 연속으로 상향되었다. 향후의 경기는 당면하고 있는 불안정한 움직임을 동반하면서도 고용·소득환경의 개선 등에 힘입어 서서히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
- 『운수·창고』『제조』『건설』등 6개 업계가 개선, 『소매』『농·임·수산』등 4개 업계가 악화되었다. 공공공사 및 주택공사가 증가한 『건설』이나 호조인 자동차생산의 영향을 받은 『제조』가 『운수·창고』등에 그 영향이 파급되어 6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 『홋카이도』나 『토호쿠』『쥬고쿠』등 6개 지역이 개선, 『호쿠리쿠』『토카이』『시코쿠』의 3개 지역이 악화, 『키타칸토』가 보합되었다. 태풍피해로 인한 복구공사 이외에 지방권에서는 맨션 등의 주택착공수가 증가되어 건설관련수요가 활발하였다. 또한 보정예산(추가경정)의 집행이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대책으로서의 보조금교부 등도 경기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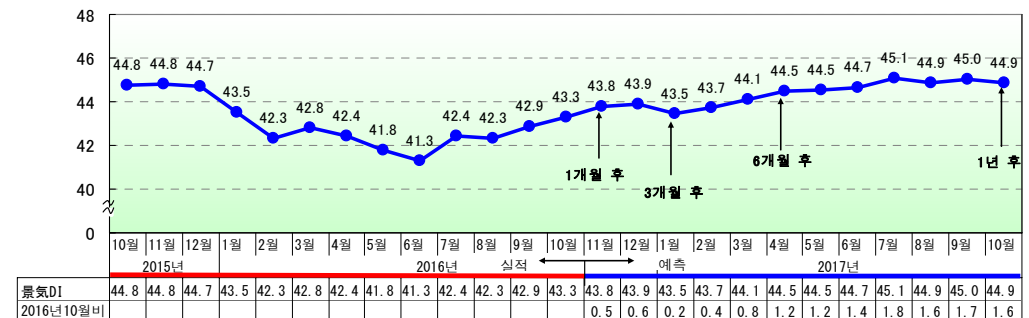
< 2016년 10월의 동향 : 회복이 지속 >

2016년 10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4포인트 증가한 43.3이 되어 2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2개월 연속으로 개선된 것은 2015년 3월 이래 1년 7개월 만이다.

10월은 환시세가 엔저추세로 추이하였으며, 닛케이 평균주가도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은 견조로 추이하였다. 국내의 경기동향은 지진과 태풍피해로 인한 복구공사에 더불어 주택대출금리의 저하나 각종 조성금 등이 영향을 미쳐 주택투자가 왕성했던 점 등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되었다. 또한 호조였던 반도체관련이나 바닥을 친 국내강재(鋼材)시황과 함께 자동차생산이 호조였던 점도 체감경기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었다. 국내경기는 자동차생산의 회복과 함께 왕성한 건설관련수요가 지속되어 2개월 연속으로 상승하였다.

< 향후 전망 : 완만한 상승세 >

향후의 국내경기는 확장적인 재정·금융정책과 함께 지진피해의 부흥이나 도쿄올림픽을 위한 공공공사가 뒷받침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소비에 관해서는 대기업의 연말상여가 3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플러스재료라고 할 수 있겠다. 해외동향은 미국의 7~9월기 GDP가 2년 만에 높은 성장율을 보여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의한 연내의 금리인상요인이 늘어나, 엔고현상에 대한 우려는 다소 후퇴하였다. 하지만 원유가격이 서서히 상승하는 가운데 액화천연가스(LNG)가격의 상승에 동반하는 전력요금의 가격인상은 기업의 업적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의 불안한 정치정세도 우려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의 경기는 당면하고 있는 불안정한 움직임을 동반하면서도 고용·소득환경의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히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예측DI는 ARIMA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모델로 분석